

01 ③	02 ③	03 ②	04 ④	05 ⑤	06 ①	07 ③	08 ④	09 ③
10 ⑤	11 ⑤	12 ②	13 ①	14 ③	15 ②	16 ①	17 ⑤	18 ①
19 ⑤	20 ④	21 ③	22 ③	23 ①	24 ④	25 ①	26 ①	

- 01** 너는 네 친구들이 네가 공부를 하지 못하게 해서는 안 된다.
 * [to keep → keep] 5형식 동사로 사용되는 사역동사 let은 목적격 보어로 동사원형을 취한다.
- 02** <보기> 지나는 저 영화를 이미 봤다.
 ① 나는 그때 이후로 Grace로부터 소식을 듣지 못했다.
 ② 나는 전에 영국에 가본 적이 없다.
 ③ 나는 운동을 막 끝마쳤다.
 ④ 나는 내 결혼반지를 잊어버렸다.
 ⑤ 나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연설해본 적이 없다.
 * <보기>와 ③은 현재완료 용법 중 원료를 의미한다. ① 계속, ②⑤ 경험, ④ 결과
- 03** 20세기까지만 해도 세포생물학의 발달은 다른 과학의 발달보다 현저하게 뒤떨어져 있었다.
 * [is falling → had been falling] twentieth century라는 과거를 나타내는 날이 있고, 전치사 until이 과거의 일성한 때까지의 동작, 상태의 계속을 나타내므로 과거완료 진행시제가 와야 한다.
- 04** * '~했을 리가 없다'의 과거 사실에 대한 강한 부정적 추측은 <cannot + have + 과거분사>로 표현한다.
- 05** ① James는 교실에 있는 모든 창문들을 확인했어야 했는데 (하지 않았다).
 ② 너는 네 과제를 다시 할 필요는 없다.
 ③ 나는 고기를 좋아했었다. 하지만 나는 지금 채식주의자이다.
 → 나는 더 이상 고기를 좋아하지 않지만 전에는 좋아했다.
 ④ 너는 지금 친절을 받으려 가는 게 좋다.
 ⑤ Kyle은 많은 책들을 썼음에 틀림없다.
 → Kyle은 많은 책들을 쓰지 않았음에 틀림없다.
 * [→ It is certain that Kyle wrote many books.] <must + have + 과거분사>는 '~했음에 틀림없다'는 과거 사실에 대한 강한 추측을 나타낸다.
- 06** ① 너는 시내에 가기 위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게 낫다.
 ② 커피 한 잔 더 마시겠어요?
 ③ 우리 팀원들은 수업이 끝나고 농구 연습을 할 것이다.
 ④ 우리는 차라리 이 영화를 보는 게 좋겠다.
 ⑤ 나의 아빠는 오늘밤에 집에 일찍 오겠다고 말씀하셨다.
 * ①에는 문맥상 '~하는 게 낫다'는 의미의 had better가 들어가야 하며, 나머지는 would가 들어가야 한다.
- 07** 나의 엄마는 내가 컴퓨터게임을 하는 것을 그만하게 했다.
 * 사역동사가 사용된 능동태 문장을 수동태 문장으로 바꿔 쓸 때 목적격 보어로 사용된 원형부정사(동사원형)는 to부정사로 바뀐다. 목적격 보어를 주어로 한 수동태는 없다.
- 08** ① 내 스마트폰이 갑자기 꺼졌다.
 ② 우리 모두는 그녀의 등장에 놀랐었다.
 ③ SNS 메시지를 모든 구성원들에게 보내라.
 ④ 나는 어제 우리 반 친구들의 웃음거리가 되었다.
 ⑤ 내 여동생은 내 크리스마스 선물에 만족했다.
 * [was laughed by → was laughed at by] 동사구 laugh at의 수동태에서 전치사 at을 빼트리지 않아야 한다.
- 09** ① 나의 부모님은 Smith 선생님을 만나러 학교에 가셨다.
 ② 다이아몬드는 돌을 자르는 데 사용된다.
 ③ 너는 미래에 무엇이 되기를 원하니?
 ④ 우리는 그 시험에 통과하기 위해 최선을 나蠹나.
 ⑤ 그는 돈을 좀 얻기 위해 시간제 일자리를 구했다.
 * ③은 to부정사가 명사적 용법으로 쓰여 목적어 역할을 하고, 나머지는 모두 부사적 용법으로 쓰여 '~하기 위하여'의 목적을 나타낸다.

- 10** (a) 어린아이들이 길거리에서 노는 것은 위험하다.
 (b) 학생들이 그들의 숙제를 하는 것은 중요하다.
 * to부정사의 의미상 주어는 <for + 목적격> 형태로 쓴다.
- 11** 후대전화의 발전 덕분에 사람들이 세계 어디에서든지 전화를 하는 것이 편하다.
 * <형용사 + 의미상 주어(for + 목적격) + to부정사>의 어순이 알맞다.
- 12** 편지를 보낼 때 서명이 된 모든 서류를 동봉하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.
 * [enclosing → to enclose] 문맥상 '(미래에 ~할 것을) 잊다'라는 의미가 되어야 하므로 forget 다음에 to부정사가 와야 한다.
- 13** (a) 너는 사무실을 나갈 때 문 잠그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.
 (b) 나는 교실을 나가기 전에 창문을 닫았던 것을 똑똑히 기억한다.
 * (a) '문을 잠그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'라는 의미이므로 <remember + to부정사>가 와야 한다.
 (b) '창문을 닫았던 것을 기억한다'라는 의미이므로 <remember + 동명사>가 와야 한다.
- 14** ① 우리는 버스 정류장에 도착 했을 때 버스가 떠나는 것을 보았다.
 ② 나는 부모님의 충고를 받아들여서 멜버른에 있는 의대에 갔다.
 ③ 나는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서 그에게 약간의 충고를 요청했다.
 ④ 그는 부상을 당해서 그 토너먼트에서 경기를 할 수 없었다.
 ⑤ 나는 길을 따라 걷다가 우연히 직장 동료를 만났다.
 * [Knowing not what to do → Not knowing what to do] 분사구문에서 부정어는 분사 앞에 위치해야 한다.
- 15** * 5형식 동사 see의 목적어와 목적격 보어가 수동 관계일 경우(만국기가 계양되는 수동 관계) 목적격 보어는 과거분사(raised)가 와야 한다.
- 16** A: 나는 멀리뛰기를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다.
 B: 가장 높이 뛸 수 있는 만큼 뛰어봐라. 네가 높이 뛰면 뛸수록 가장 멀리 갈 수 있다.
 * <(the + 비교급 ~, the + 비교급 ...)은 '~할수록 점점 더 ...하다'의 의미이다. 문맥상 '네가 더 높이 점프하면 할수록 더 멀리 갈 수 있다.'의 의미가 되어야 한다.
- 17** ① 영어로 쓰인 이메일은 하버드 대학교에서 온 것이다.
 ② 불프강 앤미데우스 모차르트에 의해 작곡된 고전 음악은 청중을 기쁘게 했다.
 ③ 한국에서 만들어진 룰플레이팅게임들은 매우 인기있다.
 ④ 이탈리아에서 온 고급 브랜드들은 매우 비싸다.
 ⑤ 학생들이 공부하고 있는 교실은 시끄러웠다.
 * 목적격 관계대명사와 <주격 관계대명사 + be동사>는 생략할 수 있지만 <전치사 + 목적격 관계대명사>는 생략할 수 없다.
- 18** ① 그들은 어제 네가 명령한 것에 불복종했다.
 ② 그것은 내가 지금까지 읽었던 최고의 시이다.
 ③ 구운 고구마는 너무 꾹꾹해서 먹기에 힘들다.
 ④ 마지막으로 내가 내 할머니를 보았을 때, 건강이 매우 좋으셨다.
 ⑤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녀는 매일 운동을 한다.
 * ①에는 앞에 선행사가 없으므로 선행사를 포함한 관계대명사 what이 와야 하고, 나머지는 모두 that이 와야 한다.
 ② 최상급 선행사 + 관계대명사 that, ③ <so ~ that...> '매우 ~해서 ...하다', ④ the last + 관계대명사 that, ⑤ <so that ...> '~하기 위해서'
- 19** 회의실을 마지막으로 떠나는 사람은 누구든지 모든 냉방기를 확실히 끌 것을 요청 받는다.
 * 문맥상 '~하는 사람은 누구든지'를 의미하는 복합관계대명사 whoever (= anyone who)가 알맞다.
- 20** ① Bill은 새로운 소형 트럭을 샀다. 그 소형 트럭은 그가 가장 좋아하는 것이 되었다.
 ② 소금 좀 전달해 주시겠어요?
 ③ 그 학생 둘 다 학교에 결석했다.
 ④ 나는 버스를 타지 않고 학교에 걸어갔다.

- ⑤ 그는 도시가 아니라 시골에 산다.
 * 교통수단에는 관사를 사용하지 않는다.
- 21** 나는 아팠다. 그래서 나는 내 숙제를 끝낼 수 없었다.
 → 내가 아프지 않았다면 내 숙제를 끝냈을 텐데.
 * 과거 사실에 대한 가정은 가정법 과거완료(if + 주어 + had + 과거분사 ~, 주어 + 조동사의 과거형 + have + 과거분사 ...)로 나타낸다.
- 22** 나는 영어로 말하는 법을 모른다.
 → 내가 영어로 말하는 법을 알면 좋을 텐데.
 → 내가 영어로 말하는 법을 안다면 외국인과 말할 수 있을 텐데.
 * 주어진 문장이 현재시제의 직설법이므로 가정법 과거로 써야 한다. (a)에는 (I + wish + 가정법 과거)가 와야 한다. 따라서 동사의 과거형인 knew가 맞다. (b)에는 가정법 과거의 주절에 들어갈 <조동사의 과거형 + 동사원형>이 와야 한다.
- 23** Max뿐만 아니라 그의 두 남동생도 그들의 친구들과 놀기를 원하지 않는다.
 * 상관접속사 <neither A nor B>의 수는 동사에 가까운 명사(B)의 수에 맞춘다.
- 24** A: 봐, 내 연들이 날아가고 있어. 나는 그것들이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어.
 B: 그냥 새들처럼 날아가도록 놔 둬.
 * 간접의문문의 어순은 <의문사 + 주어 + 동사>이다.
- 25** 무엇이 그녀로 하여금 그녀의 전공을 바꾸게 했니?
 * 의문사를 강조할 때는 의문사를 맨 앞에 쓰고, it was는 was it으로 도치된다.
- 26** ① 그녀는 2년 전에 나를 가르치신 선생님이다.
 ② Sunny와 같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 소년은 Kyle이다.
 ③ 그녀는 내가 그녀를 위해 사준 시계를 잃어버렸다.
 ④ 나는 나의 엄마가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믿는다.
 ⑤ 저기서 잠을 자고 있는 검은색 고양이를 봐.
 * 목적격 관계대명사와 <주격 관계대명사 + be동사>는 생략할 수 있지만 주격 관계 대명사는 생략할 수 없다.